다산포럼

용산국가공원 밀뫼말

정성헌
한국DMZ평화생명동산 이사장

입동이 지난 지 며칠 안 된 것 같은데, 용산 국가공원 '밀뫼말'(미르뫼 마을, 용산 마을)에는 요즘 김장이 한창이다. 배추 6만 포기, 무 2만5000개. 여기에 준비해 둔 대파·쪽파·알타리·마늘·갓·미나리가 탐스럽다. 이제 한 달 남짓 동지 전후해서는 용산 국가공원 논·밭과 숲에 겨울 철새들이 날아들기 시작할 것이다. 용산국가공원은 밀뫼말 10만 평(약33ha), 숲 60만 평(200ha) 기타 공용지 2만 평(7ha)으로 구성되어 있다. 밀뫼말에는 논 4만5000평(15ha), 밭 3만 평(10ha), 과수원(7ha), 닭·오리·토끼 우리와, 퇴비사 그리고 풀밭이 조금 있다.

여기서 많은 이들은 "19세기 말 이후 21세기 초반까지 청(중국)군, 일본군, 미군이 주둔했던 용산기지에 자연 숲 조성도 힘든데, 논밭 농사가 될 법이나 한 것이냐?"라는 의문을 품을 것이다. 필자는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에서 '아사달 유기농 태양광 발전소'를 세운 경험을 전해 드리고 싶다.

아스팔트 주차장으로 쓰던 500평을 유기농 밭으로 조성하고 태양광발전용량 70kw/h를 결합하였다. 첫해, 마늘과 양파를 수확했다. 마늘은 탁구공만 하였고 양파는 작은 감자 크기였다. 두 번째 해, 유기농으로 김장용 배추와 무 농사를 지었다. 시중의 상품용 무·배추에 비하면 대략 무게와 크기가 40% 정도였다. 아마도 삼 년째인 올해는 땅심(地力)이 더 회복되어 밭에는 온갖 벌레가 생기고 단위면적당 생산량은 화학 농법의 반을 넘어설 것이다.

용산국가공원에 전문가들의 머리와 경륜이 합해지고 자본과 행정이 주도해서 과연 밀뫼말이나 마을 앞산 같은 숲을 조성할 수 있을까? 시민들이 참여하면 가능할 것이다. 이제 용산 국가공원 조성 사업은 정말 대한민국 시민들의 큰 뜻과 꿈과 노동이 함께하고 그래서 그 과정 자체가 하늘·땅·사람이 어우러지는 '큰 역사'가 되기를 소망한다.

다만 자연과 사람이 함께하는 용산국가공원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공존, 노동, 지혜의 덕목이 있어야만 한다. 첫째, 공존 : 사람과 사람, 대한민국과 지구촌, 사람과 자연의 공존이다. 둘째. 노동 : 운동의 땀과 노동의 땀을 같이 알아야 한다. 농업 노동, 풀 베기, 나무 가꾸기, 각종 도구 만들기 등의 노동이 개인 학습, 사회 학습의 기초가 된다. 셋째, 지혜 : 역사, 지리, 천문, 명상, 집단놀이, 노동 등 정보와 지식을 넘어야 지혜가 생긴다.

자급적 순환 마을과 탄소 제로 마을 공동체가 양대 기조이다. 용산 국가공원에는 자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곳에서 생산된 생명의 농산물과 농업·임업·축산 부산물, 각종 생활재 폐기물이 공원 내 식당, 교육장, 선물 판매장 등에 공급되고 재활용되고 새로운 상품으로 재창조된다. 재활용과 새로운 활용은 당연히 탄소 제로 마을을 전제로 한다. 예컨대, 모든 집은 나무와 흙과 돌을 소재로 한다. 나무 집이라야 이산화탄소를 흡수 고정한다. 농사를 지어도 당연히 생명의 농업(유기농업·자연농업이 중심이다. 친환경 농업이란 개념도 사절한다)이고 생활과 농업의 필요한 에너지는 자연에서 구한다.

자연 에너지의 대표적인 것이 유기농 태양광 발전소이다. 유기농과 태양광발전을 결합해야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저감, 땅심 살리기와 함께 생명의 농산물 및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 탄소 제로 마을은 모든 생산, 소비, 여가활동 등을 관철한다.

용산국가공원 부지는 100년 넘게 군사기지로 쓰였으니 지금쯤 땅이 얼마나 망가졌는지 모르겠다. 토양 오염이 큰 문제다. 땅은 딱딱하게 굳어졌을 것이다. 생명은 부드럽고 따뜻한 것! 죽음은 딱딱하고 차가운 것! 땅의 생명력을 되살려야 한다. 먼저 가능한 곳부터 땅을 몇 번이고 갈아엎어야 한다. 그리고 우선 두 세 가지 일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첫째, 양삼(케나프) 심기 사업이다. 양삼은 박토에도 강한 생명력을 발휘하는 1년생 초본이다. 온실가스 흡수 능력이 뛰어나고(상수리나무의 10배) 용도가 무궁무진하다. 땅심 회복에도 좋다. 올해 아쉬운 대로 5~6만 평에라도 심는 것이 좋다. 4월 말에 심어야 한다. 둘째, 유기농 태양광 양묘장을 1500평 정도 만들자. 양묘장 1500평에서 용산공원에 심을 각종 묘목을 생산한다.

셋째, 3대 겨울 작물인 밀·보리·유채를 심자. 10월 중·하순에 최대한 많이 심는 것이 좋다. 겨울에는 난방용으로 화석연료를 더 쓰는데, 대부분 풀과 나무는 겨울잠에 들어간다. 대기오염이 더해가며, 설상가상으로 중국과 몽골에서 황사와 미세먼지까지 날아온다. 밀·보리·유채를 최대한 심어야 한다. 우리 밀 1평을 심으면 산소가 2.5kg 배출된다. 5월이 되면 밀·보리가 제일 아름다운 녹색으로 모습을 드러낸다. 우리 시민들은 용산에서 역사(歷史)를 역사(役事)할 뜻과 능력이 있다.

경제이야기

망각의 진통 효과

이정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장

해가 갈수록 깜빡깜빡하는 정도가 심해진다. 경자년 새해 인사를 나누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달포가 훌쩍 지나가 버렸다. 기억 담당 중추인 해마가 쪼그라든 탓이리라.

게으른 해마를 단련시킬 겸, 먼 기억의 저편을 더듬어 보자. 바로 20여 년 전 인기리에 상영되었던 '기억'에 관한 영화, 거장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메멘토' 얘기다. 전직 보험 수사관이었던 주인공(레너드)은 아내가 살해당하는 사건으로 충격을 받고, 현재로부터 10분 전까지만 기억하는 단기 기억 상실증에 걸린다. 레너드는 기억나지 않는 과거의 기록을 찾아보고 메모를 해가면서 아내 살해범에 대한 복수 의지를 불태운다. 주인공은 과거가 기억에서 사라져 버렸음에도, 기록을 볼 때마다 끔찍했던 장면이 상기되면서 괴로워한다.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전달하고자 했던 주제가 정확히 무엇이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다만, 레너드의 끔찍한 과거가 기록에 의해 박제되지 않았다면, 기억 상실증에 걸린 주인공이 과거의 트라우마에서 벗어나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지 않았으리라는 안타까움이 아스라한 잔영으로 남아 있다. 즉 필자가 느꼈던 영화 메멘토는 인간에게 '망각'이 항상 불편한 것만은 아니며, 때로는 효능 좋은 진통제 역할을 한다는 것이었다.

지금이야말로 이런 망각의 진통 효과가 절실히 필요한 시기이다.

지난 2월 4일 오찬 모임 중이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16번째 확진자가 당시까지도 청정 지역이었던 광주에서 발생했다는 문자가 대부분 참석자들의 휴대폰에 동시다발적으로 울렸다. 곧이어 16번 환자의 동선이 일부 가짜 뉴스와 섞여 무분별하게 살포된다. 환자가 머물렀던 병원은 이름조차 생소한 코호트 격리가 시작되고, 2차 감염자까지 확인되면서 광주는 일시에 공포의 도시로 변한다.

시민들의 소비 활동은 크게 위축되고, 여행, 음식, 숙박, 도소매업 등이 큰 타격을 받는다. 중국산 부품 공급 애로로 광주의 대표 기업 기아자동차마저도 이틀간의 휴업 결정을 내린다. 마침내 16번째 확진자 발생 후 불과 엿새만인 2월 10일, 이용섭 광주시장의 주재로 긴급 경제 단체 간담회가 열리고, 지역 경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긴급 대책이 논의되기에 이른다.

역사는 거울이다.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지역 경제가 신음하고 있는 지금, 과거 사스나 메르스 등 주요 감염병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냉정히 살펴보자. 공통적인 특징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경제는 심리다'라는 명제가 경제 지표에서 뚜렷하게 증명되는 것이다.

전염병 발생 직후에는 시민들의 불안과 언론의 부정적 보도 등이 상호 작용을 일으키면서 공포 기제가 순식간에 작동한다. 소비 심리가 급속히 얼어붙는 것이다. 그러나 전염병이 어느 정도 관리되는 3~6개월 후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경제 지표는 급반등한다.('V자형 회복')

예를 들어, 사스가 창궐했던 2003년 1분기와 2분기 우리나라 성장률은 각각 -0.7%, -0.2%로 극심한 침체를 겪다가, 안정화된 3분기에는 곧바로 +1.9%로 급반등하였다. 바로 인간이 갖고 있는 편리한 진통제, 망각이라는 방어 기제 덕분이다.

최근 다시 악화일로에 있는 코로나 19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개인 위생'을 철저히 준수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상기했으면 한다. 아울러 필자는 극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분들께 두 가지만 교훈 삼아 미래에 대비하기를 간곡히 말씀 드린다.

첫째, 전염병에 따른 극도의 경기 침체는 대체로 수명이 그다지 길지 않다는 점이다. 세계 최고 수준의 공중 보건 체제를 갖춘 우리나라와 광주시 방역 당국의 노력, 소비자들이 갖고 있는 '망각'이라는 편리한 방어 장치를 믿자. 어렵지만 희망을 잃지 말고 몇 개월만 버티는 리스크 관리 전략이 유효하다는 뜻이다.

둘째, 최근 들어 전염병이 과거보다 자주 발생하고 있다(사스 2003년, 신종 인플루엔자 2009년, 에볼라 2014년, 메르스 2015년, 코로나19 2019년 등). 더구나 세계 경제가 글로벌 공급 사슬에 의해 더욱 촘촘해진 지금은 전염병이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더욱 커졌다. 전염병을 어쩌다 발생하는 '블랙 스완'(검은 백조)쯤으로 치부하지 말라는 것이다. 바야흐로 전염병은 이제 경제의 상수다. 항상 대비하라.

※이정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장이 '경제 이야기' 코너로 독자를 만납니다. 이 본부장은 광주·전남 경제 현안과 국내외 경제 이슈 등을 경제·인문학적 시선으로 바라보는 칼럼을 게재할 예정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기 고

일·생활 균형 문화가 저출산 해법이다

안경주
전남여성가족재단 원장

올해에도 지자체들이 저출산 및 인구 문제를 풀기 위해 수천억 원의 예산을 배정했다는 기사를 접한다. 그러나 아이를 낳은 가족에게 제공하는 지원비와 물품, 청년들에 대한 취업·창업 지원, 주거 지원 등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들이 저출산과 인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충분 조건이라고 보는 데는 무리가 있다.

젊은 친구들은 비혼의 이유로 실업 및 경제적인 요인보다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았던 부모의 결혼 생활에 대한 부정적 모습을 꼽는다. '이런 것이 결혼이라면' 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다. 젊은 남녀 청년들에게 가정은 갈등, 성차별 그리고 과도한 책임이 부여되는 장이다. 밀레니얼 세대는 남성 1인 생계 부양자 모델을 부담스러워하며 남녀를 막론하고 사회적 활동을 통해 자신의 존재감을 인정받고 싶어 한다.

그러나 우리의 가정은 이러한 사회적 변화로부터 문화적 지체 상태에 놓여 있다. 맞벌이는 맞살림, 맞돌봄으로 나아가야 함에도 육아와 가사, 가족 돌봄의 주된 담당자는 여전히 여성이다. 온종일 밖에서 일하고 돌아온 여성들이 집에서 또다시 노동을 한다. 이러한 '82년생 김지영'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즉 양성 평등 정책이 저출산 및 인구 문제를 해결하는 출발선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저출산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한 국가의 문화적 세대 재생산을 위해서 필요한 출산율은 2.0대라는 것과 경제 활동 인구의 급감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여성 고용률이 50% 중반이면서 일·생활 균형 제도가 정착되지 못한 한국에 비해 여성 고용율이 70~80%를 유지하고 있는 스웨덴과 프랑스 등의 유럽의 경험은 양성 평등 정책이 어떻게 인구 문제를 돌파해냈는지를 잘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1970~80년대 인구 급감을 경험한 북유럽이 내놓았던 처방전은 남녀가 함께 일하고, 함께 가정을 돌보며, 함께 쉼을 나누는 일과 생활의 균형 제도를 현실화하는 것이었다.

여성만이 아니라 남성도 적극적인 가족 돌봄의 담당자가 되는 정책, 즉 '아버지가 아이를 돌볼 권리'를 찾게 하고 좋은 아버지는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가정을 돌보는 아버지'라는 사회적 상을 정립했다.

더불어 돌봄 정책에 '아버지 육아 휴직 할당제'를 두어 일·생활 균형 제도를 현실화한 것이다. 스웨덴은 일·생활 균형 제도를 통해 출산율과 여성의 고용률, 그리고 양성 평등한 가정과 사회를 정착시키는데 한 세대 이상이 걸렸다. 양성 평등 의식과 문화의 확산 그리고 그것이 현실의 삶을 바꿔 내는데 걸린 시간이다.

최근 문재인 정부에서 군인이 첫 자녀를 낳아 1년 이상의 기간을 휴직해도 해당 기간은 모두 진급 최저 복무 기간으로 인정되는 내용을 담은 '군 인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심의, 의결하였다. 또한 부모 동시 육아 휴직이나 배우자 출산 휴가의 확대 등 일·생활 균형을 위한 혁신적 방안을 내놓은 것은 고무적인 정책적 진전으로 본다.

다만 남성들의 육아 휴직 사용률이 낮은 우리의 현실을 바라볼 때 '아버지 육아 휴직 할당제'와 같은 정책을 통해 남성들의 가족 돌봄에 대한 인식과 문화를 적극적으로 바꾸어내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다.

일·생활 균형 정책은 남성과 여성이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고, 함께 문화 예술을 향유하는 양성 평등한 사회와 가정을 만드는 것이다. 이는 또한 우리 젊은이들이 가족 생활에 대하여 긍정적인 상상력을 갖고 진정한 스위트홈을 만드는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내며, 장기적으로 저출산과 인구 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社 說

민관 공조 체계로 코로나 장기화 대비해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자가 빠르게 늘면서 광주·전남 지역도 비상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특히 지역사회 감염이 현실화되고 있지만 이를 통제하고 관리·감독할 컨트롤 타워가 없어 제대로 위기를 극복해 낼 수 있을지 우려된다. 광주 지역 확진자는 지난 주말 신천지 대구교회와 관련성이 있는 일곱 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어제까지 모두 아홉 명(두 명은 완치)으로 늘었다. 이들 확진자와 접촉한 주민도 260명이나 된다.

이런 상황에서 광주시는 방역에 안간힘을 다하고 있지만 수시로 발생하는 확진자와 이들의 동선을 파악하는 데도 힘겨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소극적인 방역 활동으로 접촉자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지 못한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남구·동구보건소는 '코로나19' 126번과 164번 확진자가 '대구에 다녀왔다'며 검사를 요청했지만 발열 등 증상이 없다는 이유로 돌려보내기도 했다. 바이러스의 외부 전파를 차단하는 음압 병상도 광주 31개, 전남 30개 등 모두 61개밖에 없어 환자가 급증할 경우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지역 의료계에선 사태 장기화와 감염자 급증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 시스템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이 자치단체에서 감당할 수준을 넘어선 만큼 광주시가 주도하는 행정 위주의 방역 시스템과 의료계 주도의 감염병 시스템을 병행 가동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지난 2015년 세계를 휩쓸었던 메르스 사태 당시 광주는 의료인이 주축이 된 민관협의체를 발 빠르게 구성해 '청정 광주'를 유지하고,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다. 광주시는 지금이라도 감염병 전문 의료 인력을 중심으로 한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해 가용 의료 자원을 최대한 확보하고, 보건소와 1·2·3차 병원 간 체계적인 역할 분담을 통해 코로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헌혈 적극 동참해 국가적 위기 극복해 나가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이하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한 혈액 수급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사랑의 헌혈 행사'가 줄을 잇고 있다. 여수시는 지난 20일 여수시청과 문수청사에서 시청 직원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사랑의 헌혈' 행사를 가졌다. 신안군도 21일 혈액 수급 비상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공무원 및 유관기관 직원 등이 헌혈에 참여해 따뜻한 생명 나눔을 실천했다. 장성군 역시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혈액원과 연계해 24일 상무대에 이어 오는 28일에는 장성군청, 소방서, 경찰서에서 헌혈 행사를 갖는다.

이처럼 헌혈 행렬이 이어지면서 우리나라는 코로나19 여파로 불어닥쳤던 혈액 위기를 또다시 슬기롭게 극복하고 있다. 열흘 전만 해도 공급 부족으로 텅 빈 혈액 냉장고에 가슴을 쳐야 했던 대한적십자사 직원들로선 요즘 기적을 보는 것만 같다고 한다. 요 며칠 사이 혈액 보유량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혈액 부족으로 일선 병원에선 수술까지 미룰 정도였으나 이처럼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 것이다.

헌혈은 긴급하게 수혈이 필요한 환자들의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것만이 아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헌혈이 줄어들면 혈액으로 의약품을 만드는 제약·바이오 기업들까지 비상이 걸린다. 이들 제약·바이오 업체는 정상적인 혈액제제 생산을 위해 해외에서 혈액 수입을 늘리거나 생산 자체를 줄일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기업 수익성은 더욱 악화된다. 헌혈이 필요한 또 다른 이유다.

헌혈을 하게 되면 그 과정에서 간 기능 검사와 B형·C형 간염검사를 포함한 11종의 혈액검사 결과도 제공된다. 그러니 자신의 건강을 체크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도 된다. 생명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헌혈에 적극 참여해 국가적 위기를 극복해 나가자.

無等鼓

공포의 전염

지난 2003년 봄, 홍콩에 출장갔을 때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있는 모습을 봤다. 버스에 탄 승객이든 거리를 걷는 사람이든, 굳은 표정으로 마스크를 단단하게 착용하고 있었다. '사스'(SARS·중증 급성 호흡기증후군)가 한창 창궐하던 때의 홍콩 시내 풍경이다.

공포의 사전적 의미는 '두려움'(恐)과 '무서움'(怖)이다. 인간은 수만 년에 걸쳐 진화를 해 오면서 경험과 학습을 통해 많은 지식을 축적했는데, 인간의 공포심 역시 진화 과정의 산물이라고 한다. 뱀을 예로 들어 보자. 누구든 뱀을 보면 무섭고 두렵다 한다. 이러한 공포심은 왜 생기는 걸까? 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뱀과 만나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류는 진화 초기부터 뱀을 피하기 위한 시각중추가 발달했다고 한다.

공포는 위험을 피할 수 있는 방편이 되지만 때로는 '편견'과 '혐오'를 낳는 뿌리가 되기도 한다. 무지에서 비롯된 공포는 빠른 속도로 대중들에게 번진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되는 가운데 세계 여러 나라에서 한국 사람을 포함한 아시아인들의 자국 입국을 제한하는 조치가 취해지고 있다. 한국에서도 1월말에 중국인 입국 금지를 해야 한다는 청원이 제기된 바 있다. 청와대 국민소통 광장 '국민청원' 코너에 올려진 '중국인 입국 금지 요청'에 지난 22일까지 76만1883명이 동의했다. 이스라엘이 한국인에게 취한 조치와 이것을 역지사지(易地思之)하면 얼마나 터무니없는 일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코로나 19'에 지나치게 공포심을 가져 폐쇄적으로 사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앞으로도 계속 닥쳐올지 모를 감염병을 겪어 나가면서 우리들의 생각 또한 '공포'를 뛰어넘어 '진화'해야 할 것이다.

프랑스 작가 알베르 카뮈는 1947년 발표한 첫 장편소설 '페스트'에서 도시를 휩쓴 전염병에 맞서 싸우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의적으로 묘사한다. 그는 소설 속 한 인물을 통해 이렇게 말한다. "그들은 이제 알게 되었다. 사람들이 항상 바라고 가끔씩 손에 넣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람에 대한 애정이라는 것을."

/송기동 문화2부장 song@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4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52	체육부 220-0621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42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